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 함께하는 100년 농협



# CCTV로 인파밀집 살피고 해산...오세훈, 헬러윈 안전 현장점검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헬러윈 인파' 압사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핀 뒤 떠나고 있다.

이태원 헬러윈 참가 1주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새로 도입한 '인파감지 시스템' 가동 상황과 안전관리 대책을 현장점검하고, 인파밀집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하는 등 종합 점검에 나섰다.

헬러윈 데이는 이달 31일이지만, 이날이 평일인 관계로 이번 주말에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2시 광진구 건대맛의거리(가운데)를 찾아 주요 인파밀집 지역의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지능형(AI)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위험 징

후를 사전에 알리는 인파감지 시스템을 직접 점검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인파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한 결과 당초 예상한 14곳에서 2개 지역을 추가해 이태원과 홍대, 강남역 등 16곳에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보고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 건대 맛의거리서 안전관리·인파 대책 점검...상황가정 유관기관 합동훈련 '주의-경계-심각' 3단계 나눠 위기징후시 해산방송...오 시장 "면밀 대응"

행안부·자치구·경찰·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파밀집 예상 지역의 합동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사전 현장점검도 해오고 있다.

또 전날에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전관리 전문위원단이 함께 이태원로 일대와 압구정 로데오거리, 홍대거리를 방문해 단계별 교통통제 계획, 경찰력 배치 및 비상통로 확보 방안, 유관기관 간 현장 대응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인파밀집 위험을 사전 감지해 알려주는 인파감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스템 가동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에 준비된 대형화면에는 자치구 CCTV 관제실에서 통솔하는 인파감지 영상이 동일하게 송출돼 시스템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오 시장은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함께

인파감지 CCTV의 폴대에 설치된 비상벨의 작동 여부도 직접 점검하고, 관제실 직원을 격려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광진구는 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건대맛의거리 일대 9개 지점에 CCTV 25대를 설치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 시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파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훈련도 실시됐다.

시는 인파 밀집 위험단계별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구분하고, 좁은 골목(30㎡)의 밀집도에 따라 시와 유관기관이 인파 해산을 위해 대응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단계별로 주의는 1㎡당 3명(30㎡ 골목에 약 90명), 경계 단계는 1㎡당 4명(약 120명), 심각 단계는 1㎡당 5명(약 150명)이 밀집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은 우선 골목에 약 60명이 유입된 상황에서 행인이 119에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신고 내용은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공유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유관기관에 전파된다.

주의 단계에서는 광진구 재난안전상황실이 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락해 인파감지 CCTV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인파 해산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스피커를 통해 인파 해산 협조 안내가 여러 차례 방송됐다. 경계 단계에서는 인근을 순찰하던 광진구 현장대응조가 밀집 장소에 투입돼 인파 해산에 나섰다.

심각 단계에서는 구뿐만 아니라 광진경찰서, 광진소방서 인력이 함께 투입돼 인파를 해산하는 것으로 훈련이 마무리됐다. 심각 단계에서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찰, 소방에도 자동으로 경보 알림이 가게끔 시스템이 구축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 박정민 기자

## 빈집 철거하는 집주인,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전국 빈집 13만호...세부담 경감 혜택, 농어촌까지 확대

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행정안전부가 25일 밝혔다.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으로 전국 곳곳에 빈집이 늘면서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환경·위생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 지역 4만2천여호, 농어촌 지역 8만9천여호 등 전국에 13만호가 넘는 빈집이 있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 후에도 이를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은 탓에 철거를 꺼려온 집주인들에게 세 부담을 낮춘 것이다.

빈집 철거 후에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또 집주인들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 합산이 아닌, 별도 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 같은 혜택은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빈집 정비를 위해 50억원을 편성했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 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신혜선 기자

## 박근혜, 내일 현충원 '박정희 추도식' 참석...김기현·인요한도

###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 단합' 메시지 내놓나 정치권 관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국립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25일 추도식을 주관하는 민족중흥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자리에 선전을 추도하고, 여당 수뇌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 인사들도 함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참석한다.

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9월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에서 이뤄진 회동 이후 한 달여만이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만남은 총선을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정치권



시민들과 인사하는 박근혜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를 내

놓는다면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보수 단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문석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 30년의 동행, 함께라서 더 기대되는 내일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화재는 30년 동안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활동할 수 있도록 멋진 사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30년만큼 앞으로도 다 함께 걸아가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삼성화재**

# 尹, 카타르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방문...스마트팜 수출 독려

## 尹 “이제는 팜이 아닌 팩토리”...스마트팜 시스템 직접 작동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수도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았다. 사막 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국제원예박람회로 한국·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80여개국이 참가했다. 주제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다. 이날 개관식이 열린 한국관은 전자와 우리나라 산수로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야외 정원과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조성됐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을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관을 둘러본 후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원예박람회장에 도착하자 현지 교민들은 환호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가볍게 인사한 후 한국관 정원으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관에서 카타르 에미르(군주)인 타미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선물한 대추야자 묘목에 직접 물을 줬다.

카타르와 수직농장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수직농장 원격제어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사막 국가들은 채소나 이런 농산물 재배가 어렵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많이 쓸 텐데, 이렇게 버티컬팜(수직농장)으로 하면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몇 배 더 효율적이야”고 질문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팜(농장)이 아니라 팩토리(공장)”라며 스마트팜 시스템을 직접 작동하고, 현지에서 국내 공장 조명을 원격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청년 기업인이 첨단 공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작물 관찰 로봇도 소개됐다. 윤 대통령은 “네움시티가 만들어지면 큰 불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도시형 농업을 한다는데, 그게 되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밀폐형 스마트팜에서 나온 부여산 스테비아 토마토를 시식한 뒤 “이건 거의 뭐 설탕 짝어 먹는 맛”이라며 동행한 압둘라 빈 압둘라지드 빈 투르키 알 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에게 토마토를 쥐여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 이태원 참사 경험자 87%, 비대면 심리상담 유가족 1인당 3.7회

이태원 참사 경험자의 87%가 정부가 실시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아 상담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참사 경험자 591명 중 87%(515명)가 전화 통화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한 비대면 심리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비대면 상담은 익명성, 이용의 편리성,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상담자와 대상자 간 상호작용에 제한이 생겨 깊이 있는 상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면과 비대면 상담을 모두 포함한 1인당 상담 횟수도 유가족 3.7회, 부상자 2.3회, 부상자 가족 2.4회, 목격자 2회에 그쳐 상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면 상담을 받은 참사 경험자는 유가족 14명(6.7%), 부상자 3명(3.3%), 부상자 가족 1명(5.3%), 목격자 5명(7.0%)에 불과했다.

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

정춘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 친구가 유명을 달리한 재난”이라며 “대면 방식의 심리 지원을 시작으로 치료 및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곽상도 검찰 출석...“아들 한두차례 지원한게 경제공동체는 아냐”

### ‘50억 클럽’ 1심 무죄 8개월 만에 소환조사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곽병채씨와의 경제적 관계,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51분께 검찰청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하나는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저와는 무관하다”며 종전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 병채씨가 보석 보증금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속돼있었고 아내가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며 “출소한 다음 곧바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취업 후에도 곽 전 의원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역시 부인하면서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이플 컨소시엄이 하나는행의 이탈 움직임을 파악한 뒤 곽 전 의원이 ‘해결사’ 역할

을 한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본다.

하나는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이탈을 막고 그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는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50억원이라는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면서도 이를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 I Dream 우주여행

“아빠~ 우주여행 떠나요!”

민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재판서 혐의 인정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 단독 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

#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마리분 도입...내달 초까지 전국서 접종

## 당국 "백신접종 완료 뒤 내달 중 확산 추세 안정화 전망"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마리분을 이달에 추가로 도입해 다음 달 초까지 전국 소 농장에서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최근의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향후에 생기는 다음 달에는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백신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백신 127만마리분을 오는 28일까지 도입하고, 31일까지 273만마리분을 도입해 모두 400만마리분을 추가로 확보한다.

중수본은 현재 미리 확보한 백신 54만마리분을 이용해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인근 농장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다음 달 중 럼피스킨병 발생추세가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피스킨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한 시·군 소재 농장에서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지난 20일 처음 발생이 확인된 럼피스킨병은 이날 오전 8시까지 모두 29건 확인됐다.

중수본은 첫 발생 농장 소의 임상 증상을 통해 지난 달 중순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흡혈 곤충이 해외에서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선박 등 항만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 등을 놓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강동호 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욱 원내대표

## 유의동 "의대정원 증원규모 논의 없었다 연말까지 집중검토"

"오늘내일 결정할 문제 아냐 정밀 수요조사 필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규모와 관련해 "오늘내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숫자를 기본 내키는 대로 2배, 3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필요한 지역으로 인력과 필수요 과목 인원, 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등에 대해 정밀한 수요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하든지 이런 방법도 같이 논의

해봐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단체와 의료서비스 수요자, 야당과 교감도 중요하다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0명에서 3천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각 언론이 평소의 생각들을 숫자에 반영해 기사로 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TF 위원장은 유 의장이 맡았고, 국회 보건복지위(강기윤)·교육위(이태규)·예산결산특위(송언석)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정책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외부 인사들도 TF에 참여할 예정이다.

/ 권정석 기자

##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광복 초석 된 장군의 길 언제나 기억"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독립유공자 최고로 예우하는 것이 국가보훈부 책무"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식이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여전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추모사에서 을미사변 직후부터 의병과 독립군을 이끈 홍범도 장군의 행적을 기리며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승전은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됐다"며 "일제의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은 때때로 좌절은 했을지언정 독립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

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웠던 장군은 이역만리에서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순국했지만, 장군의 길은 수많은 애국 청년의 길이 됐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1945년 마침내 광복을 쟁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셨고, 윤석열 정부는 장군을 비롯해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을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모시고자 독립기념관

에 호적을 창설했다"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영웅들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도록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 장관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빈 민주당 의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배우 조진웅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홍범도 장군 추모사, 헌화, 분향,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홍범도 장군은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의병을 일으키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의병과 동포들을 중심으로 대한 독립군을 창설, 국내에 잠입해 해산진·자성군 등에서 일본군을 급습해 전과를 거뒀다. 1920년 일제의 독립군 탄압 계획 등에 맞서 독립군부대를 지휘, 일본군 대부대를 무찌른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승전으로 이끌었다.

1943년, 76세의 일기로 순국하기 전까지 연해주에서 후진 양성에 주력했다.

/ 안자석 기자

## 검찰, 野김병욱 측이 기자에 대장동 수사기록 넘긴 정황 포착

"주임검사가 조우형에 커피" 남욱 조서 전달... '尹커피' 보도로



조우형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영웅담처럼 얘기"

JTBC 홈페이지 캡처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대선 막바지 윤 대통령을 향한 공격 소재로 활용된 이 보도에 민주당 측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배후 세력'을 면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JTBC 소속이었던 봉기욱 기자 관련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실제로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보도에서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남씨의 2021년 11월19일자 조서를 공개했다.

남씨가 검찰에서 "조우형이 부산저축

측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검찰이 확보한 통화기록 등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봉 기자가 조씨가 수사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진술과 인터뷰를 고의로 누락하고, 민주당 측에서 받은 남욱 조서 내용 등만을 짜깁기해 보도한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다.

지난 17일 JTBC가 공개한 진상조사위원회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봉 기자가 당사자인 조씨로부터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황이 나타난다.

조씨가 2021년 10월26일 봉 기자, A PD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주임 검사 만 나신 적은 없느냐'는 물음에 '없죠'라고 답했고, 이와 같은 내용의 조씨 진술조서를 봉 기자가 확보했다는 것이 자체 조사 결과다.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2일 이씨의 통화에서도 "조우형은 이번에도 또 참고인 조사 받았

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만난 게 윤석열이 아니다. 막 이렇게 부인을 해요. 저희 인터뷰 때도 그렇고"라고 말하기도 한다.

검찰은 압수품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봉 기자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리 전화동인6호 실소유자란 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점 등에서 그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었고, 측근들의 증언을 통해 검증해 보도했다는 것이 봉 기자 입장이다.

/ 진성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교시 스킴론 운전자 교통안전 TEST 100점

1.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운전자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가·나·다]로 시작하는 스킴론 교통안전 수칙은 무엇인가요?  
※ 아래의 내용을 채우세요.

가기 전 살피고,  
나 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

스쿨존에선 교통안전 100점 [운전자]가 되어 주세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가나다 캠페인  
어린이, 운전자 모두 함께 실천해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Q에 참여해 주세요.

검찰, 野김병욱 측이 기자에 대장동 수사기록 넘긴 정황 포착

"주임검사가 조우형에 커피" 남욱 조서 전달... '尹커피' 보도로

JTBC 홈페이지 캡처

조우형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영웅담처럼 얘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대선 막바지 윤 대통령을 향한 공격 소재로 활용된 이 보도에 민주당 측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배후 세력'을 면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JTBC 소속이었던 봉기욱 기자 관련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실제로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보도에서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남씨의 2021년 11월19일자 조서를 공개했다.

남씨가 검찰에서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김만배가 '오늘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씨가 조사받고 나와 실제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진술 내용이였다.

그러면서 봉 기자는 '당시 주임검사는 조우형 사촌형 연락처도 전해준 정황...배후세력 추적'을 면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JTBC 소속이었던 봉기욱 기자 관련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실제로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보도에서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남씨의 2021년 11월19일자 조서를 공개했다.

남씨가 검찰에서 "조우형이 부산저축

은행 사건으로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김만배가 '오늘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씨가 조사받고 나와 실제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진술 내용이였다.

그러면서 봉 기자는 '당시 주임검사는 조우형 사촌형 연락처도 전해준 정황...배후세력 추적'을 면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JTBC 소속이었던 봉기욱 기자 관련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실제로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보도에서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남씨의 2021년 11월19일자 조서를 공개했다.

남씨가 검찰에서 "조우형이 부산저축

은행 사건으로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김만배가 '오늘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씨가 조사받고 나와 실제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진술 내용이였다.

그러면서 봉 기자는 '당시 주임검사는 조우형 사촌형 연락처도 전해준 정황...배후세력 추적'을 면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JTBC 소속이었던 봉기욱 기자 관련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실제로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보도에서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남씨의 2021년 11월19일자 조서를 공개했다.

남씨가 검찰에서 "조우형이 부산저축

은행 사건으로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김만배가 '오늘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씨가 조사받고 나와 실제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진술 내용이였다.

그러면서 봉 기자는 '당시 주임검사는 조우형 사촌형 연락처도 전해준 정황...배후세력 추적'을 면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JTBC 소속이었던 봉기욱 기자 관련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실제로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보도에서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남씨의 2021년 11월19일자 조서를 공개했다.

남씨가 검찰에서 "조우형이 부산저축

# 이재명 “尹, 이념전쟁 멈추고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 “말 따로 행동 따로’ 태도로 국민 우롱…사진 찍기 아닌 실제 현장 가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대통령과 정부가 부디 이념 전쟁을 멈추고 고물가와 생활고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패배 후에 국민의힘은 거리마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는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실제 행동이 과연 그러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행따’ 이런 정부 여당의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

려면 가독이나 어려운 민생 현실에 이념 갈등을 더 하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해서 안 된다”며 “언행이 일치하는, 정부 여당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경제팀이 줄기차게

‘상저하고’ 노래를 불러왔지만, 결론은 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상저하저’라면서 “너무 따뜻한 방에서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외국에 나가서 해외 문물을 익히고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며 “국민들만 생각하더라도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정말 권유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번 가 보라. 사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이라며 “현장 속으로라는 구호만 할 게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게 아니라 실제 현장 속으로 가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준영 기자



출근하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 尹대통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판결 성향과 관련해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언급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 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 위헌 결정 등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왔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지난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 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국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

/ 민성호 기자

## 이준석 “신당 가능성 배제 안해 유승민과 논의하고 있진 않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5일 “신당 가능성은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간다”면서도 “유승민 전 의원과 상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신당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는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석이 어렵다. 그런 거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당 형태에 대해서는 “신당을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비례 신당 같은 것은 할 생각이 없다”며 이 전 대표가 본인의 국회 임성을 위해 비례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향점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할

거면 정의당처럼 이념 정당을 할 것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 내는 것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펙트럼보다 훨씬 넓게 시작할 것”이라며 “20대 남성 정당이니 대선 전 보수에 다시 합당하려는 것 아니냐느니 하지만 그런 신당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신인규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탈당한 후당을 차리려고 할 것”이라며 “(신 변호사에게) 나는 그 길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항상 선택은 존중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낡은 기득권과 기회주의에 매몰돼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 정당이 됐다”며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대통령의 사유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는 저와 동지이지 탈당에 대한 의견이나 신당에 대한 방향성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동지라고 해서 다 같은 길만 가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 홍명섭 기자

## 인요한 “광주 5·18묘지 찾고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얘기할 것”

### 혁신위 구성후 내주 5.18 묘지 방문 계획…“출발은 그게 맞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로 들어오고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5일 혁신위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정도면 위원들이 정해지면 제가 5·18(묘지)에도 모시고 갈 것이고, 출발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한 것을 연상시키는 일적이다.

김 당시 비대위원장은 추모탑에 헌화 한 뒤 15초가량 무릎 꿇은 채 묵념했다. 보수계열 정당 대표가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인 위원장이 혁신위 활동의 주요 키워드로 ‘통합’과 ‘변화’를 꼽은 만큼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통합 행보를 본격화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 위원장은 “제가 여기 온 것은 제 일 굴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하고도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것이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제가 살아가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 한 일도 있고, 누구 가족처럼 복잡한 일도 있고, 저는 재혼한 사람”이라며 “제가 좀 망가져도, 희생돼도, 여기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공천 톨까지 들여다볼지에 대해 “집 같은 건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잘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내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 내용이 ‘영남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낙동강 하류는 6·25 때 우리를 지킨 곳이다. 이후 많은 대통령이 거기에서 나왔다.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농담도 못 합니까”라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인 위원장은 26일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송유영 기자

## 與, ‘野 제기 이선균 음모론’에 “증거도 없이 대중 선동”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윤석열 정권이 배우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으로 김승희 전 대통령 실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등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아무 증거도 없이 대중을 선동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25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건은 우리가 덮을 이유도 없고 덮여지지 않는 일”이라며 “선부른 의혹 제기를 하고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게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마자자인 2017년 6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으로 전국이 뜨거웠다. 그때 우리가 모두 알만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마마초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 패배의 대통령 책임론 등에 관한 기사가 ‘이선균 마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노승만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퇴직금, 불릴 줄 아는 사람은

# NH투자증권 IRP

퇴직금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 퇴직연금엔 NH투자증권입니다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기인 전 상품설명서, (24)투자설명서, 집합투자계약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급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가산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는 예금보도대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고객님의 다른 예금보도 대상 금융투자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의 연급저축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문명/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문화가 됩니다. (ETF/리츠 별 상세,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등 참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사실 제23-01894호(2023.05.25~2024.05.24)

NH투자증권

# '해병대 수색' 생존 병사, 전역 후 공수처에 1사단장 고소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지난 9월에는 모친이 사단장 고발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25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전날 만기 전역한 A씨는 이날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내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라며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



추모하는 해병대

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사망했다.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온 A씨는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던 채

상병의 모습이 꿈에 자주 나타났다"며 "여전히 채 상병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렸는지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했고 간부들은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면서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에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의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부대에서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미 많았고 결국 사고가 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월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중령)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로 넘겼다. / 송진영 기자



매천시장 화재

# 경찰, 대구 매천시장 화재 관련 8명 '허위공문서작성'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25일 당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직전에 실시한 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실제 시설 상태와는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점검대행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관리사무소와 수년째 수의계약을 맺어 소방시설을 매년 점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화재 당시 불이 난 시장 A동 일부 구역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를 수리를 위해 잠가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대구 강북경찰서는 화재 원인에 대해 "실화·방화 혐의점이 없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의 경우는 점검이나 정비에 관한 경우에만 잠그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 박철우 기자

#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장, 사퇴 의사 밝혀



구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약 4분 뒤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식약처장은 지난 23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한정에 의원은 김 이사장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오 처장에게 확답을 요

/ 이선호 기자



# 교통안전공단, GTX-A 철도시설 건설 현장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5일 서울 수서역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철도시설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년 초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교통안전공단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사업시행자인 SG레일 등이 그간 추진된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은 GTX-A 현장 기술 지원 및 개통 전 사전 컨설팅, 현장 점

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 이후 실시되는 종합시험 운영 결과를 비롯해 전반적인 시설물 상태와 운영 절차, 인력 등을 확인해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모든 국민이 GTX-A 사업이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적기 개통은 물론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소희 기자

#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교통경찰관 해임 처분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 경장을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이던 A 경장은 지난 5월 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SK incheon petrochem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친환경 에너지로 환경과 사회에 가치를 더하다

그린에너지 Provider로 도약하는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 그린으로 플렉스

Hi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엠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 ‘이스라엘 편’ 바이든에 성난 아랍계 민심…내년 대선 변수되나

## 바이든, “인질이 먼저”라며 휴전 논의 소극적…이스라엘엔 무기 등 전폭 지원



18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봉쇄와 공습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임시 휴전 제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미국 내 아랍 사회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많은 아랍계 미국인들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휴전 논의에 나서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여론이 내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아랍 인구는 대선에서 주요 경합지로 꼽히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에서 2~5% 정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미시간주의 아랍계 인구는 가장 많은 5%에 달한다.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경우 1.7~2% 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에서 50.6%의 표를 얻어 47.8%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으며,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바이든 50.01% 대 트럼프 48.84%로 8만1천표 이하의 근소한 차이로 겨우 승리했다.

내년 대선에서 이들 지역의 무슬림 인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바이든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바이든에게도 표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빙의 승부수가 펼쳐질 경우 스윙스테이트에서 아랍계 미국인들의 표심이 판을 흔드는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아랍계 미국인들은 지난 7일 벌어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 과도한 대응, 그리고 이를 규탄하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

에 분노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휴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인질들이 풀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등 휴전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서 무슬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미시간주 디어본의 첫 무슬림 시장 압둘라 함무드는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가자지구에 물과 전기, 식량 공급을 막은 이스라엘의 결정을 바이든이 규탄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무슬림)의 목소리가 완전히 지워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대표해 달라고 선출한 이들이 침묵하는 지금의 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며 “가자지구에 갇혀 있는 우리 가족들은 무시당하고 있고, 휴전을 원하는 요구는 전쟁의 북소리에 묻혔다”고 적었다.

뉴욕 아랍계 미국인 협회 상무이사 출신인 린다 사르수르는 지난 21일 열린 최대 무슬림 단체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 강연에서 무슬림들이 미국 국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며 정치적인 기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IR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현재 전체 팔레스타인 인구를 겨냥한 집단 학살의 수준에 들어섰다”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가자지구의 인종 청소가 공모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릴랜드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가자지구 출신의 작가이자 사회 운동가인 라일라 엘-하다드는 “(이번 전쟁으로) 바이든이 미시간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143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랍계 표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스와스모어 대학에서 평화분쟁학을 가르치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사예드 앳산은 이번 지원을 두고 “바이든의 정치적 미사여구를 보고 있으면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쏟아부으면서 팔레스타인에는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랍계 미국인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백악관 측은 아랍계 인사들을 만나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또 물밑에서 하고 있는 여러 노력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제프 자이언트 비서실장과 아니라 던 백악관 선임 고문이 아랍계 직원들과 아랍 사회 구성원을 만날 예정이며 다른 각료들에게도 이런 만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23일 팔레스타인·아랍계 미국인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유대인계 미국인 단체들을 만났다. /송원기 기자



인도네시아 크리스마스 미사

## “십자가, 전봇대로 재사용해야” 인니 남성, 종교모욕으로 체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독교를 조롱하던 인도네시아의 한 20대 남성이 ‘종교 모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트리부 뉴스 등에 따르면 북수마트라주 경찰은 지난 21일 들리 스프링 지역의 한 주택에서 틱토크 피크리 무르타파(28)를 관련 혐의로 체포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린 동영상에서 십자가에 대해 농담하며 기독교인들은 회개한 뒤 국영 전력회사인 PLN에 십자가를 반납해 전봇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SNS 계정에서도 교회와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들을 했다.

경찰은 피크리가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중요성을 부추길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정보·전자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크리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자

신이 한 말은 농담이었으며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기독교와 가톨릭, 힌두교 등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특정 종교를 비방할 경우 일명 신성모독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최근에는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올린 ‘돼지고기 먹방’에서 음식을 먹기 전 이슬람식 식전 기도문을 읊어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다.

또 2016년에는 기독교인이자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인 바수키 차야야 푸르나마(아후)가 집회에서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이슬람 경전 쿠란의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정미 기자

## 정상회담서 빨강·핑크 양말…태국 총리 ‘파격 패션’ 논란

### 기업가 출신에 리버풀 팬…“외교무대서 부적절” vs “새로운 트렌드”

외교무대에서 다채로운 원색 양말을 신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파격 패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타 총리는 최근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연이어 핑크와 빨강 등 튀는 색상의 양말로 눈길을 끌었다.

25일 타이PBS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타 총리는 중국 방문 기간 중인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청색 정장에 열린 핑크 넥타이를 매고 더 짙은 핑크 양말을 신었다. 정장과 양말, 넥타이가 지 검정 등 무채색 계열이었던 푸틴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세타 총리 패션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태국 일각에서는 관습에서 벗어난 독특한 패션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평론가들은 “총리가 세계 무대에서는 더욱 적절한 색조를 택해야 한다”고 비



분홍 양말 신은 세타 태국 총리

판했다.

정상회담 등에서 빨강이나 핑크 양말을 신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개인적인 취향을 고집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일부는 세타 총리의 패션이 “우스꽝스럽고 광대 같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반면에 차이 와차롱 정부 대변인은 “해외 순방 중 복장이 아니라 논의 내용과 국익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타 총리가 상대적으로 대담한 패션이 받아들여지는 기업가 출신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색다른 패션이 세계 정치 무대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세타 총리는 태국의 대형 부동산개발 업체인 산시리 회장 출신으로,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태국 언론들은 세타 총리의 패션이 러시아에서도 화제를 모았다고 전했다.

중국 방문 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한 세타 총리는 21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는 새빨간 양말을 신었다. 앞서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하면서도 그는 빨간 양말과 넥타이를 착용했다.

지난달 13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핫핑크 양말을 신었다. /강문수 기자

## “트럼프, 통일교 관련 행사에서 3회 영상 강연에 33억원 받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2022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예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유관 단체로부터 영상 출연 형식의 3회 강연료로 250만달러(약 33억원)를 받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과 2022년 2월 및 7월에 가정연합의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이 연 행사에서 각각 10분 안팎의 영상 메시지 형식 강연을 해 각각 50만달러와 100만달러, 100만달러를 받았다.

UPF는 통일교 창시자인 고 문선명(1920~2012) 전 총재와 한 학자 현 총재가 2005년 설립한 민간 단체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연료를 받은 행사는 UPF가 2021년 9월 12일 한국을 거점으로 연 온라인 행사와 2022년 2월 10~14일 서울에서 개최한 ‘월드 서밋 2022’, 같은 해 8월 11~15일 역시 서울에서 연 행사다. 이는 미국이 대통령 후보 등을

상대로 제출을 의무화한 재무보고서를 마이니치신문이 확인한 결과다. 미국은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 30일 이내, 혹은 매년 5월 25일까지 대선 후보의 수입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월드 서밋 2022’ 연설로 강연료 55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재무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마이니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21년 9월 UPF 개최 행사에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무슨 이유로 보수를 받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문제를 파헤쳐온 일본 언론인 스키즈 에이트 씨는 아베 전 총리가 이 동영상 메시지로 보수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UPF 일본 지부는 단체의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렸다면 스키즈 씨를 상대로 1천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도쿄지방법관소(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박성현 기자

**가자, 유병자도 실속 챙기는 세상으로**

실속을 따져 볼 건라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니까

유병자도 종신보험을 실속있게 가입할 수 있는 시대

**교보실속간편가입종신보험Plus(무배당)**

· 교보생명 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가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잔액(의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시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 상품은 유병자나 고연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상사과정을 간소화한 간편형종신보험으로 일반형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형종신보험의 보험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의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확인번호 1-2305-47 상용지원팀(2023.05.24~2024.05.23) 생명보험협회심사번호 제2023-02422호(2023.05.30~2024.05.29)

**KYOBŌ**  
교보생명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실손보험이 있으면 없으면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장윤정

## 병원비든든내의료비보장보험 | 갱신형, 무배당 |

점점 쌓이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질병 구분 없이 쉽고 간편하게 돌려받고 든든한 내일을 만드세요**

※ 요양병원, 정신병원 진료비 제외 ※ 비급여 제외

### 1년간 들어간 본인부담금 보장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동의 하나로 보험금 지급

(연간 총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기준)

질병치료	입원
상해치료	통원

**OK**

###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간한도 리필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주계약 보험료 할인



보험청약 시 고향 사랑기부제 참여 의사 확인

최초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 **5% 할인**  
(최초계약 납입기간 동안 적용)

**보험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이 계약은 2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다만,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 순수보장형으로 최종 갱신합니다. ※ 갱신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보험료(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보험금)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190일 이내 단기 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사명(전자사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산금을 합쳐)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고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해.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 보험 상담 또는 불만 사항이 있을 때에는 NH농협생명 내망같이 고객센터(1544-4000)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 없이 1332, www.fss.or.kr)로 연락하십시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BUSAN, KOREA | NH농협생명이 응원합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 내 재산 내 뜻대로 상속하고 싶다면?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지금 바로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보세요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

※ 365일 24시간 언제나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 1566-8004

리빙트러스트  
바로가기



**유언대용신탁 13년의 노하우**  
2010년 출시 이후 13년간 축적된  
상속 집행의 노하우와 솔루션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컨설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토탈 케어 솔루션



**1:1 맞춤형 상속설계**  
신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맞춤 플랜으로 상속 설계 및 이행



**종합자산 관리 & 운용**  
상속 전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재산관리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실정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5%~1%, 집행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75%~1.5%, 금전 관리보수(연보수): 신탁원본평균잔액의 0.3%~1%, 부동산 및 기타 관리보수: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 신탁보수는 개별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통한 상속 및 증여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116호 (2023.04.05~2023.11.30) \* CC브랜드 230329-0454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241호(2023.04.05~2023.11.30)



# 김동연 지사, UN ESCAP사무총장과 기후변화대응 논의

## 말레이시아 장관과도 면담...장모 상중임에도 공식 일정 소화



김동연 지사, UN ESCAP 사무총장 면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아미다 살리아 엘리스자바나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이고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

적인 지방정부이고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분야는 기후 행동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면담에는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임동아 네이버 이사, 오교선 사위플러스 대표 이사 등 도내 대·중소기업의 ESG 책임자들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이어 데이비드 응아 코 밍 말레이시아 지방정부 부발전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와 말레이시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응아 장관은 "지방정부발전부는 주택, 도시계획, 폐기물, 전당포,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국민밀착형 정책들을 담당한다"며 "경기도와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경기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장모가 별세해 상중임에도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해외 인사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 서정미 기자



굴수협 위판장에 올라온 굴

## '가을에 돌아온 바다의 우유' 철 맛은 남해안 생굴 출하

가을과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생굴이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돌아왔다.

전국 유일 굴 양식 수협인 굴수협(수협)은 24일 오후 경남 통영시 용남면 굴수협 위판장에서 생굴 초매식(첫 판매)을 갖고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굴은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생산된다. 특히 통영시를 포함해 거제시, 고성군 등 남해안은 최대 양식 굴 산지로, 전국 생굴의 약 70%가 이곳에서 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공인한 청정 해역답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최고 장점이다.

올해는 이상 고온 현상이 적었던데다 긴 장마로 육지에 있던 영양분들이 바다로 유입돼 굴 상태도 괜찮은 편이다.

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로 인해 소비가 부진할 우려가 있는 점은 어민들 불안 요소다.

굴 양식업을 하는 박강근 씨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전체적으로 수산물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어 걱정이다"며 "정부와 수협에서 생산과 소비를 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생굴 계절이 찾아오면서 굴까지 공장(박신장)도 일제히 문을 열었다.

이날 통영시 한 박신장에는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굴까지 작업을 이어갔다. 굴 껍데기에서 굴을 떼낸 뒤 통에 담은 모습은 마치 기계처럼 정교하고 일사불란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난 굴은 10kg씩 포장돼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이날 경매에는 약 70~80t의 굴이 올랐다.

가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됐다.

지흥태 굴하수협조합장은 "남해안 굴은 알이 굵고 신선해 전국 어디서든 항상 인기"라며 "올해도 어민들이 굴 양식에 애쓴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 강호영 기자

## 당진시, 챗GPT 탑재한 어르신 돌봄 로봇 전달

충남 당진시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탑재한 돌봄 로봇 '효돌'을 관내 독거 어르신 10명에게 보급했다고 24일 밝혔다.

효돌이는 어르신과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돌봄 로봇과 차이가 크다. 챗GPT를 탑재한 돌봄 로봇이 보급된 것을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효돌이는 어르신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식사·기상·약 복용 시간 등을 알려준

다. 치매 예방을 위해 간단한 퀴즈도 낸다. 어린 손주·손녀와 같은 모습을 한 봉채 인형 모습으로, 각 부위에 센서가 있어 해당 부위를 만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어르신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며 말을 건네면 노년기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시는 다음 달에는 어르신 120명에게 추가로 효돌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24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효돌' 전달식

오성환 당진시장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효돌이와 교감하면서 행복감을 느

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 대구시, 헬러윈 대비 특별안전관리대책 마련



대구시는 헬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과 사고 예방 특별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27일과 28일, 31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중구경, 대구경찰청,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 등 연인원 309명을 투입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행정부시장이 특별안전관리 근무를 총괄 지휘하고 재난안전실장 산하에 상황총괄반, 현장상황반, CC(폐쇄회로)TV 관제반, 질서유지반, 응급구호반, 의료대응반, 주차차 및 적치물 단속반을 운영해 인과 밀집에 신속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11일 동성로 클럽골목에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26일에는 클럽골목에서 유관기관 현장 대책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김형일 시 재난안전실장은 "작년까지 열리던 남구 앞산 카페거리 헬러윈 행사가 올해는 취소되는 등 예년에 비해 비교적 차분해 보이지만 시는 이에 방심하지 않고 안전한 헬러윈 데이가 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 중장년 1인 가구 식품꾸러미 지원...울산 중구 "사회관계망 회복"

울산시 중구는 '중장년 1인 가구 장바구니 가득 채움 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식사를 거르기 쉬운 중장년 1인 가구에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고려아연 후원금과 중구 지역 기관·단체·개인 등이 낸 성금 등 총 1천 280만원을 활용해 시행한다.

중구는 24일 이 성금으로 중앙전통 시장에서 계란, 참기름, 불고기, 과일 등 8가지 신선식품으로 구성된 식품꾸러미를 구매해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중장년 1인 가구 152가구에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고자 식품 영양 정보와 건강한 식단 구성법 등이 담긴 식생활 지침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하고자 하는 중장년 1인 가구 13가구에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중구보건소와 함께 기초 건강검진과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중구는 추후 가정별 복지 수요일

파악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연계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웃과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우리금융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 '혹시모른다'는 말을 달고사는 사람들

죽을지도 모른다든 두려움보다  
'혹시한 사람을 더 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가능성으로 불길에 뛰어든다

혹시 당장 출동하지 모르니까  
불어는 짜장면보다는 볶음밥을 사려고

혹시 오늘 출근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늘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출근한다

그렇게 '혹시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소방관은 움직인다

우리금융그룹은  
매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인 듯 살아가는  
우리 히어로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 순직 및 상해 임은 국민 소관 경찰 공무원 지원
- 전한직 군인/군인 가족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 지원사업

당신을 위한 일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현재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을  
최선으로부터 지키는 방범 집합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생명보험 우리금융투자증권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이 작은 꿀벌이 제 전부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선인양봉종봉원 박혁진 대표 (23세)

이 작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꿀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도 꽃송이를 오가며 꿀을 모으는  
꿀벌들을 보면서 성실함의 가치도 배웠고요

더 열심히 이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줘야겠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처음엔 도전이었던 이 꿀벌이  
이젠 제 전부이자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두번째 이야기 ☺



K-Bee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 KB 금융그룹

# 제주올레길 걷는 외국인 여행자 증가...“마을, 바다, 숲 다양”

## 유럽, 미주, 아시아 지역 다양한 국가서 꾸준히 방문

유럽과 미주, 아시아 지역 다양한 국가의 도보 여행자들이 꾸준히 제주올레길을 찾고 있어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올해 4월부터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과 무료로 함께 걸어주는 프로그램인 워킹메이트를 20회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109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올레 워킹메이트 기념사진

워킹메이트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 도보 여행자들의 국가는 영국, 스페인, 멕시코, 루마니아, 헝가리, 호주, 미국, 러시아,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코타키나발루 등 19개국이다.

최근 호주의 트레킹 전문 여행사 휴 캠프 포트 하이킹의 마커스 루드릭스 대표는 자신이 코로나19 이전에 제주올레길을 찾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전역에서 30~70대 트레킹 애호가 13명과 함께 제

주를 찾았다.

이들은 워킹메이트와는 다른 길동무라는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제주올레길 1코스, 1-1코스, 6코스, 7코스를 걸으며 제주의 자연을 접하고 해녀들을 만났다.

자넷 만레이(64세) 씨는 “마을과 숲, 바다를 다양하게 지나는 제주올레길을 친구

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달 초순에 워킹메이트와 함께 6코스를 걸은 러시아인 엘레나 마르코바 씨는 “올레길을 통해 제주도의 매력에 푹 빠졌다. 내년 봄에 남편과 함께 전 코스 완주에 도전할 생각이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코타키나발루의 대학생들이, 지난주에는 홍콩의 여행 인플루

언서들이 각각 올레길을 걷고 제주올레여행자센터를 찾아 올레길의 역사를 듣기도 했다.

안은주 제주올레 대표는 “제주올레가 수출한 규슈올레, 미야기올레, 몽골올레 등 ‘자매의 길’과 해외 트레일 등이 협력해 공동 홍보하는 10개국 13곳의 ‘우정의 길’ 등을 통해 제주올레길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9월 도입한 ‘제주올레x산티아고 순례길 공동 완주 인증제’가 널리 알려질수록 유럽 및 아시아 도보 여행자들이 제주올레를 더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올레는 11월 2~4일 제13회 제주올레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전날 저녁에는 제주올레 자매의 길과 우정의 길 관계자, 아시아트레일즈 네트워크(ATN) 회원 100여명이 모여 교류하는 ‘글로벌 패밀리 나이트’를 진행한다. / 오현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6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 인근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연 1주기 추모주간 선포 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 이태원참사 유족 “1주기 추모대회 29일 서울광장서 개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1주기 시민추모대회의 서울광장 개최 희망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서울시에 전달했고 서울시와 협의의 통해 광장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월 서울시가 부과해 고지한 62일간의 서울광장 분향소 사용료와 연체금을 포함한 변상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2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했다.

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거쳐 불허했으나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시는 무단 점유의 책임을 물어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2천900만원을 부과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서울시가 29일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책임은 서울광장’은 장소를 변경해 청계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 송원기 기자

## 삼척 외국인 계절근로자, 김치담그며 한국문화 체험

강원 삼척시와 삼척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24일 하장면 복지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44명, 고용주 25명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김치담그기, 한국 전통 놀이 체험, 한복 입어보기, 농악놀이, 난타 공연 등으로 진행했다.

삼척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그 속에 담긴 정서를 느끼며 친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 김현성 기자



## 남원시의회·시민 ‘국립의원법률 통과 촉구’...의원들 삭발



남원시의원 등 삭발식

전북 남원시의회와 시민들이 24일 상경 집회를 통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와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남원시의원들과 시민 등 200여명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따른 국립의원법률안 통과를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과 강인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소대수 특별위원회 위원, 남원애향본부 김경주 이사장이 삭발했다.

전평기 의장은 “남원 국립의원 설립은 전북과 남원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찾겠다는 정당한 권리로, 당초 당·정·청 합의를 이행해 촉구하는 것”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 양승민 기자

## ‘한복 입고 영남루 거닐어요’ 밀양시, 한복 대여 프로그램 인기



지 700여명이 다녀갔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2시간 동안 무료로 한복을 입을 수 있다. 또 옷고름 매는 법 등 한복 착용법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 여성 한복 40여벌, 남성 한복 10여벌이 마련됐다.

한복을 입고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를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복 대여자들이 전통 한옥으로 된 밀양 관아와 영남루를 배경 삼아 사진을 즐겨 찍는다”며 “하루 15팀 이상 찾는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복 대여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한다. / 남정희 기자



## 하동군 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내달 1일부터 적용

경남 하동군은 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최근 열린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임금·물가 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 경영난 등을 반영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0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주행거리 2km까지 기본요금은 5천원이고, 2km 초과 130m마다 150원씩 올라간다.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이 부과되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 시계 외 30% 할증이 적용된다. / 한경준 기자

서울특별시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 안심이다

안심소득은 현(現)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소득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최선의 대안입니다.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안심인

## 서울 안심소득

1. 더 폭 넓게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하위 33%까지 지원)
2.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소득격차를 완화합니다 (부족 금액의 절반 지원)
3. 근로능력과 부양가족의 입증 절차 등이 간소합니다
4. 일할수록 가치분 소득도 증가해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안심을 보다. **안심소득**



# 농촌 여행은 웃음이 익어가는 여행

아이도 어른도  
함께 웃으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모두가 그리워하던 여행  
마음이 원하는 우리 농촌에서  
힐링 여행을 보내세요



# '부산 데뷔전' 맹활약 허용 "함성에 짜릿...이게 농구의 묘미"

## 전창진 감독 "관중 많이 온다는데, 불러놓고 망신당할까 걱정"

"이런 느낌은 오랜만에 받은 것 같아요. 골 넣을 때마다 함성이 들려 짜릿하고 즐거웠어요."

프로농구 부산 KCC의 '부산 데뷔전' 패스를 이끈 허용은 8천700명이 넘는 팬들이 보여준 열기가 바로 '농구의 묘미'라고 표현했다.

KCC는 22일 오후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첫 번째 홈 경기에서 서울 삼성을 106-100으로 격파했다. 22년 만에 전주를 떠난 KCC는 이날 경기를 통해 새 연고지 부산에서 첫선을 보였는데, 8천700명이 넘는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좌석이 모두 동났다.

23점을 울리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허용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장대 열기를 돌아보며 "이게 바로 농구의 묘미라고 생각한다"고 웃었다. 이어 "행복했다. 체육관이 큰데, 빈자리가 없도록 계속 찾아와주시면 오늘 같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사직체육관은 전 층을 모두 활용하면 1만2천여 명을 수용해 프로농구 전체 구단의 홈 경기장 중 가장 많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전주 시절 사용한 전주체육관의 수용 인원인 4천여 명의 3배가량 된다. 실제로 이날 관중 기록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한 경기 최다 관중을 크게 상회했다. 올해 2월 19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에 5천271명이 찾은 게 지난 시즌 최고치였다. 운집한 관중을 보고 가장 마음을 졸인 사람은 바로 전창진 감독이었다.

전 감독은 "오늘 정말 부담이 컸다. 이기고는 싶은데, 사실 알리제 드슨 존슨이 어제 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연습을 하지 않았다"며 "라건아의 몸 상태는 썩 좋지 않았다. '내일도 아프면 어쩌지' 걱정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부산 개막전에 관중이 많이 온다는데, 감독으로서 사람들 불러놓고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닌가 고민도 많았다"고 웃었다.

전 감독은 이 경기장을 잘 안다. 수원 kt가 부산에 연고를 둔 2009~2015년 전 감독의 홈 경기장이 사직체육관이었다.

전 감독은 "kt 감독 시절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해본 후에는 이런 경험이 없다. (이후)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어쨌든 부산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의 은희석 감독도 8천명이 넘는 관중이 자아낸 분위기가 패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은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았다. 그런 모습이 감독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롯데 자이언츠 감독 김태형 취임

## 롯데 지휘봉 잡은 김태형 감독 "화끈한 공격 야구로 우승 도전"

우승 청부사로 롯데 자이언츠 제21대 지휘봉을 쥔 김태형(55) 감독의 취임 일성은 우승이었다.

김 감독은 2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감독 취임식에서 "야구 도시 부산에 롯데 감독으로 부임해서 설레고 기대된다"며 "공격적이고 화려한, 화끈한 야구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강훈 롯데 대표이사과 선수단 대표로 전주, 안치홍, 구승민, 김원중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이사는 김 감독에게 등번호 88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전달했고, 선수단 대표는 꽃다발로 새 감독을 환영했다.

롯데는 올해 정규시즌을 7위로 마쳐 6시즌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시즌 동안 가을야구 진출에 성공한 건 2017년 딱 한 차례뿐이다.

롯데는 지난 20일 김 감독과 3년 총액 24억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두산 베어스 지휘봉을 잡고 2021년까지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끌었고, 그중 세 차례 정상을 차지했다.

김 감독은 '독이 든 성배'라는 별명이 붙은 롯데 감독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모든 야구인은 감독 제의가 오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이 따르지만, 기회가 온다면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 계약 기간 목표로 "포스트시즌에 올라가서 우승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감독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25일에는 마무리 훈련이 벌어지는 김해 상동구장에서 선수단 상견례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 오은성 기자

## '제주 4연패 탈출' 결승골 김건웅, K리그1 34라운드 MVP



어렸고, 정조국 감독 대행은 부임 이후 첫 승리를 따냈다. 34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에는 이건희(광주), 지동원(서울)이 뽑혔고, 미드필더에는 안현범(전북), 백승호(전북), 김건웅, 한교원(전북)이 선정됐다.

수비수로는 이시영(서울), 김승우(광주), 임채민(제주), 이기혁(제주)이 이름을 올렸고, 골키퍼는 이준(광주)에게 돌아갔다.

34라운드 베스트팀으로는 강원FC전에서 2-1 승리를 따낸 FC서울이 선정됐고, 베스트 매치는 대구FC-전북 현대전(전북 2-1승)이다.

한편, K리그2 36라운드 MVP는 22일 안산 그리너스전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한 김천상무의 최병찬이 뽑혔다.

/ 안성호 기자

## 오기노 감독 "한 경기서브 범실 10개-공격 범실 8개 이하로"



남자 프로배구 사상 세 번째 외국인 사령탑인 오기노 마사지 OK금융그룹 감독이 체질 개선의 첫 단추로 '범실 최소화'를 내걸었다.

오기노 감독은 24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리는 KB손해보험과의 방문 경기를 앞두고 "한 경기당 서브 범실 10개 이하, 공격 범실 8개 이하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오기노 감독은 "일본 리그는 경기가 5세트까지 가도 공격 미스가 5개 이하이기 때문에 (범실 최소화) 목표도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2023 정규시즌 전체 7개 팀의 한 경기 평균 서브 범실은 15.69개, 공격 범실은 7.22개였다. OK금융그룹의 경우 서브 범실 16.56개, 공격 범실 6.86개를 기록했다. 특히 서브 범실에 있어 과도한 목표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

/ 신진만 기자

## 세계 여자 3쿠션 선수권 우승한 이신영, 프로당구행 선언



세계 여자 3쿠션 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던 이신영(43)이 프로당구에 도전장을 냈다.

프로당구협회(PBA)는 23일 "지난달 3쿠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이신영이 여자프로당구 LPBA 이적을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이신영은 한국 여자 3쿠션 대들보 노

릇을 해온 선수로 2011년 데뷔 이래 국내 정상급 선수로 활약했다.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제 11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정상에 올랐다.

이신영은 "프로 무대에 오게 돼 설레고 기쁘다. 선수 생활 목표로 했던 세계 정상에 오른 뒤 새로운 동기 부여가 필요했다. 더 큰 무대에서 시험하고 싶다"고 도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금 해왔던 대로 한다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박정호 기자

www.kps.co.kr

#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려 거란 전쟁' 강렬 카리스마 담은 3인 포스터 공개!

배우 김동준, 지승현, 최수종이 혼돈에 빠진 고려 구해내기 위해 의기투합

고려 거란 전쟁'의 배우 김동준, 지승현, 최수종이 혼돈에 빠진 고려를 구해내기 위해 의기투합한다.

오는 11월 11일 첫 방송되는 KBS 공영 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새 대하 사극 '고려 거란 전쟁'(극본 이정우/ 연출 전우성, 김한솔/ 제작 몬스터유니온, 비브 스튜디오)은 관용의 리더십으로 고려를 하나로 모아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황제 현종과 그의 정치 스승이자 고려군 총사령관이었던 강감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오늘(24일) 공개된 3인 포스터에는 고려 제8대 황제 현종(김동준 분)과 그의 양 옆에 양규 장군(지승현 분)과 강감찬 장



군(최수종 분)이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다.

먼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지승현과 최수종 사이 뒤돌아 서 있는 김동준은 황금빛이 일렁이는 곤룡포와 관모를 장착한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고려를 꼭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김동준의 비장한 눈빛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김동준의 좌우로는 양규 장군과 강감찬으로 분한 지승현과 최수종의 모습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은 치열한 전장에서 서 있는 듯 적을 향한 적대감은 물론 언제라도 거란군을 향해 돌진할 준비가 돼 있는 용맹한 장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수종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이 어진 전장으로 쌓인 세월이 고스란히 스

며들어가고, 거란군을 상대로 고려를 지키기 위해 필사의 전략으로 대비하는 강감찬 장군의 모습과 함께 귀주 대첩 승리의 카타르시스를 예고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뒤에는 불에 타고 있는 개경궁부터 찬란한 변영의 꽃을 피우는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 이들이 걸아갈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웹메이드 대하 사극의 진면목을 보여줄 KBS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새 대하 사극 '고려 거란 전쟁'은 오는 11월 11일(토) 저녁 9시 25분 첫 방송된다.

/ 이지승 기자

## 서울 중구,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 27일 개막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 스틸컷

이 상영되고 최영준 변사의 공연도 열린다.

영화제에서는 총 36편을 만날 수 있다. '접속', '봄날은 간다', '장화, 홍련' 등을 충무아트센터와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중구 일대에서 상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cffs.kr)와 인스타그램(@cffs\_official)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사장 조세현)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회장 양윤호)의 주최·주관으로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개막식은 오는 27일 충무아트센터에서 개최되며 개막 영상은 충무로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충무로'다. 뒤이어 무성영화인 '검사와 여선생'

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개최되는 만큼 '마을극장' 코너를 신설해 남산골 한옥마을 등 관내 곳곳을 찾아가는

영화제는 다음 달 1일 충무아트센터에서 막을 내린다. 폐막작은 '배드 랜드'(Bad Lands)다. 한국에서 처음 상영하며 하라다 마사토 감독의 무대인사도 예정돼 있다.

/ 김진수 기자

## 에이핑크, MBC '아이돌라디오 라이브 인 서울'

완전체로 뜨겁게 달궜다!



들의 히트곡들을 열창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첫 곡으로 'DND'를 부르며 등장해 밝은 에너지로 무대를 꽉 채운 에이핑크는 명불허전 완벽한 라이브 실력으로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뽐냈다. 이어 '리멤버'(Remember)까지 대표 히트곡 무대를 연달아 선보인 에이핑크는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신나는 퍼포먼스로 공연장의 열기를 더했다.

인기 걸그룹 에이핑크(Apink)가 케이팝 대표 걸그룹다운 무대를 펼쳐 보였다. 에이핑크는 22일 저녁 방송된 MBC 라디오 콘서트 '아이돌라디오 라이브 인 서울'(IDOL RADIO LIVE IN SEOUL)에 출연해 완벽한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에 방송된 '아이돌라디오 라이브 인 서울'은 지난달 2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공연으로 에이핑크는 자신

에이핑크는 여전한 미모와 팀 케미를 선보이며 데뷔 13년차 '뽀뽀 걸그룹'다운 여유로움이 가득하면서도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뽀뽀 아이돌'의 대표적인 좋은 예로 손꼽히고 있는 에이핑크는 현재 개인 활동은 물론 완전체 활동을 병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지은 기자

## '싱어게인 시즌3' 우승자는 누가 될까?



참가자들의 탄탄한 실력이 돋보이는 무대로 매회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던 만큼 새 시즌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쟁쟁한 역대 우승자 라인업을 자랑해 이번 시즌의 우승자는 누구일지 기대감을 더한다.

시즌3 본선 진출팀 명단과 1회 예고편, 선공개 영상을 통해서 낯익은 참가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시즌3에는 심사위원장을 맡은 오디션계의 살아있는 전설 윤종신을 비롯해 데뷔 37년 만에 처음 심사위원에 도전하는 임재범, 가요계의 여왕 백지영, 전 세대를 사로잡은 프로듀서 코드 쿤스트가 합류하며 역대급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들의 심사는 물론 '싱어게인'의 터줏대감 김이나, 규현, 이해리, 선미와의 케미스트리 역시 궁금해진다.

이처럼 기다림의 이유가 가득한 JTBC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은 오는 10월 26일 목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 윤유선 기자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이 '믿고 보는' 수식어를 이어간다.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은 무대가 간절히 가수들이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신개념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26일 밤 10시 시즌 3가 첫 방송된다.

'싱어게인'은 지금까지 두 번의 시즌을 거치며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한 참가자들의 도전과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조명하며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 블랙핑크 지수·배우 안보현, 공개 연애 두 달 만에 결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관계"라며 교제 사실을 인정한 지 약 두달 만이다. 지수는 지난 2016년 8월 블랙핑크의 리더로 데뷔해 개성 있는 음색과 빼어난 외모로 글로벌 별한 인기를 누렸다.

결그룹 블랙핑크의 지수와 배우 안보현이 최근 결별했다. 이들을 잘 아는 한 연예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에 "이들이 헤어졌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디스패치가 이들의 열애설을 보도한 후 곧바로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데뷔한 이래 '이태원 클라쓰'(2020), '유미의 세포들'(2021), '군검사 도베르만'(2022) 등에 출연해 배우로도 얼굴을 알렸다. 최근 종영한 tvN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 홍지민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

구독 광고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할 때입니다

# BUY KOREA BUY BOND

대한민국 국공채, 국내 우량채권을  
**KB증권**에서 투자하세요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3595호(2022년 10월 28일~2023년 10월 27일) \*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행사의 부도, 파산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 순으로 구분됩니다.

**KB증권**

K-콘텐츠,  
단디 준비했다 아이가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연극영화극단 김현준 이태민 최명경님]

# 2030 부산세계박람회 BUSAN IS READY!

부산에서 시작해 전세계가 함께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 미래,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